

영적으로 타락한 바벨탑 문화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다. 특히 인류 최초의 제국이라고 부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이 갈대아 우르였다. 이 아브라함을 향해 “믿음의 조상”, “축복의 근원”, “모든 민족의 영적 조상”이라고 부른다. 성경은 이 축복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라고 강조한다(갈3:29).

이 약속대로라면 우리 각자는 내 가문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정도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자들이 맞다.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믿어진다. 여전히 지금 나는 어렵다고 한다. 그 이유가 뭘까?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한다.

오늘 붙잡아야 할 답이 뭐냐? 나의 과거 치유와 영성 회복이다. 아브라함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다.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가 어디서 왔냐? 치유 받지 못한 과거에서 왔고, 그것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씩 치유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도 전부 축복으로 바뀌었다. “복의 근원”이라는 언약대로 인생 전부가 축복이 되었다.

1. 왜 과거 치유가 중요한가? 그것이 나의 영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겠다.

- 1) **과거 치유가 안 되면 내 지나온 날의 시간은 전부 상처로 남고,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진다.** 나이가 드는 것도 억울한데 노년이 될수록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. 자식들과 소통이 안 되고(소외감), 없던 병도 생기고, 노인 우울증도 심각하다. 그런데 이런 고통들이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. 벌써 성인 시기로 가는 사춘기에 겪고,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오기도 하고, 갑자기 올 수도 있다(심지어는 공포증, 공황장애) 거의 이런 병들이 과거(상처, 아픈 경험과 기억)와 연결되어 있다. 의식에서는 잊혀진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을 하기도 하고, 내 무의식에 남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, 계속 참고 살다가 한계에 부딪혀 나오기도 한다.
- 2) **우울증, 공포증, 공황장애,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.** 약물로 회복한다고 하다가 약물 중독이 되기도 하고, 거기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 많다(대학생들의 30%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경험)
- 3) **이런 심각한 증세는 아니더라도 믿음(영성)의 큰 손해를 본다.** 하나님의 약속, 머리로 아는 데 안 믿어진다. 안 믿는 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?(히11:1-2).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, 늘 사단에게 당하게 된다.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다. 결정적인 사건이 정답뿐 사건이다. 후대까지 고난을 당한다(민14:33).

2. 어떻게 과거 치유를 받을 것인가? 반드시 세가지 축복을 붙잡고,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집중해야 한다.

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“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” 했다. 무슨 뜻인가?

- 1) **그리스도를 알고,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순간(구원) 우리에게 시작된 근원적 축복을 붙잡으라는 말이다.** 우리가 어떤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았어도, 그래서 어떤 실패 속에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, 그를 영접한 순간 내 근원이 바뀐 것이다.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(그리스도)으로 가라는 말이 그 말이다.
 - ① **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다.** 그런데 그 나는 어떤 배경 속에 살아 왔냐? 창3장의 원죄의 저주, 출20:4-5의 가문의 저주, 요8:44의 마귀의 저주, 히9:27의 영원한 지옥(이 세상부터 지옥)이 나의 배경이었다. 끝없는 문제와 고통과 저주 속에서 못 빠져 나온다. 운명이라고 한다.
 - ② **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여기서 빠져 나온 것이다.** 아브라함에게 “복의 근원이 될지라” 했던 것처럼 모든 숨은 고통과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뀌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다(근원적 축복). 엡1:3-5의 축복이다.
 - ③ **세상에서도 근본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다.** 세상의 부와 성공에 상관없이 저주 받은 가문과 하나님의 축복 받은 가문은 분명히 다르다. 마귀도 성공시켜 줄 수 있다.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. 고후5:17의 “새로운 피조물이라”는 말이 그 뜻이다. 근본이 다른 것이다. 모든 저주, 운명, 지옥은 끝난 것이다.
- 2) **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언약적 축복을 붙잡으라는 것이다.** 근본이 바뀌었음에도 또 문제가 올 수 있다. 광야 같은 세상이고, 아직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이다(계20:10)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문제에 상관없이 체험해야 할 언약적 축복을 주셨다(2-3절) 과거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방법(최면 치료, 망각, 대면, 약물치료)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다.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내고, 묵상하고,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(히4:12) 4절에 아브라함이 “여호와와 말씀을 쫓아갔다”고 강조한 이유도 그것이다.
 - ① **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다. 증인의 언약이다.** 나의 남은 생애, 평생의 시간표를 통해 체험하고 누려야 할 축복이다. 단순한 성공, 축복이 아니다.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다.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언약을 붙잡은 믿음 회복할 때는 전부 축복이 된다.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다(롬4:3).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, 가나안의 헷 족속이 땅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그 인생의 결론이다. “내 주여, 당신은 우리 중에 축복 받은 방백(a mighty prince)이니이다” 내 지나온 과거의 눈물도, 상처도, 억울했던 일도, 마귀가 보고, 세상이 똑똑히 보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.
 - ② **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,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했다. 승리의 언약이다.**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애굽왕에게 준 사건이 있다. 17절에 “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”고 했다. 하나님이 늘 부족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이다. 이유는 하나다. 내가 그리스도 안에,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. 이것이 언약적 축복이다. 율법 안에 있었다면 그 믿음대로 저주 받아야 한다.
 - ③ **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. 전도자의 축복,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다.** 경제적으로, 영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축복하셨다. 빈손으로 가나안을 갔는데, 집에서 키운 가병이 318명이 었다(창14:14).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(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),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, 유일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된다(창19:29). 그 후대를 통해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신다(마1:1)
- 3) **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붙잡으라. 그것이 성령충만이고, 영성이다.**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, 넘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다.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다(요4:24).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닫고, 먼저 한 것이 예배다. 가는 곳마다 계속 제단 쌓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다(6-9절)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. 혼자 드리는 예배,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,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(롬12:1-2). 예배의 키가 뭐냐? 늘 감사 찾아내고, 그 분을 높이고(우선권, 오직), 그 분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다

결론-과거 문제 치유받고,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을 누리고, 다가 올 미래를 준비하라.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가 발악하나 “여호와와이레”,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(창22:14). 그 속에서 최고의 영성 누리기를 축원한다.